

# 탕평·전문성 살린 집행부 인선...이젠 광주체육 발전 힘 모아야

## 민선 2기 광주시체육회 본격 출범

민선 2기 광주시체육회 출범을 계기로 광주 체육 발전을 위해 체육인들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는 최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신임 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이사회를 열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부회장 9명, 이사 33명으로 구성된 시체육회 집행부 인선은 탕평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어 기대를 모았다. 이사 대부분을 교체했고 생활·전문체육계 인사들이 두루 포진해 눈길을 끌었다. 체육회장이 집행부를 꾸릴 때마다 반복됐던 '논공 행상' 인사를 되풀이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집행부 구성 과정에서 자전 타전 인사가 물망에 올랐으나 전 회장이 과감하게 체육발전을 위해 헌신할 인사들을 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체육회가 집행부 인선을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의

생활·전문체육계 인사들 두루 포진...반복됐던 '논공 행상' 탈피 호평  
조직 개편 통한 공모사업 경쟁력 확대·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등 과제  
체육인들 화합·지지 통해 힘 모으고 광주체육 위상 다져 도약 계기로

단조를 마련했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시체육회 조직 개편은 대표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회장들이 조직개편을 검토하거나 추진했지만 내부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시체육회는 대대적 조직 개편을 통해 국비 공모사업 경쟁력 확대에 방점을 찍고 법무, 감사, 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스포츠마케팅부 신설을 위해 경기운영부와 시민체육부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선시대에 걸맞은 예산 독립성과 안정화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현안이다.

체육계 원로들은 이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육인들의 화합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 체육계 원로인 김영자 동시대 이사는 "집행부를 새로 꾸리고 새출발을 기약한 광주체육회와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면서 "체육회가 개혁하지 않고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잘해줄길 바라는 것은 인간생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집행부에서 체육회 화합과 발전을 이끌고 학교, 생활, 전문 체육에 고루 투자해 소외된 종목 없이 두루 발전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생활·전문체육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창현 전 광주교대 총장은 "그동안 각자 진영논리와 잇속에 매몰되는 바람에 생활, 전문체육계 화합의 걸림돌이 됐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만큼 생활·전문체육계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면서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생활, 전문체육은 서로 지향점이 상이한만큼 무리하게 화학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보다 생활체육 부문에서는 좋은 지도자를 발굴해 많은 시민이 스포츠를 향유하도록 이끌고, 전문체육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활동 등을 바탕으로 광주체육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그동안 광주 체육회는 회장 권한 대행체제로 꾸려져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 현안에서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김홍식 동시대 명예교수는 "체육회의 힘은 체육계 구성원들의 지지와 신뢰에서 나온다"면서 "그동안 난맥상을 보였던 광주체육이 한 차원 더 발전하려면 집행부를 중심으로 모든 체육인들이 화합해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 게임, 전국체전 유치 등에 나서 광주체육의 위상을 새로 다지고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 '역전패' 광주도시공사 충격의 연패

핸드볼리그 SK에 24-30 탈미

후반 득점력 저하...선두 탈환 실패

광주도시공사 여자 핸드볼팀이 시즌 개막 후 첫 연패에 빠졌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19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SK코리안리그 SK 슈가글라이더즈에서 24-30(14-12, 10-18)로 패했다.

시즌 개막 후 처음으로 2연패한 광주도시공사는 12승 2무 3패(승점 26)를 기록하며 1위 탈환에 실패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삼척시청에 1점차 뒤져 2위로 내려앉았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2일 리그 최하위 대구시청전에 이어 리그 3위인 SK에 잇따라 탈미를 잡히는 등 최근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주포 강경민은 대구시청전에서 6골(6도움), 이번 경기에서 4골에 그쳤다. 강경민은 어깨쪽 컨디션이 좋지 않아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날 정현희(6골), 김지현(5골)이 점수를 보였으나 SK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뒷문을 든든하게 지키던 골키퍼 박조은도 방어율 26.5%에 그쳤다.

광주도시공사는 주전 원선필(파붐)과 서아루(레프트 윙)가 부상당하면서 대체 자원을 투입하며 경기를 치르고 있으나 전력 누수를 겪고 있다.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송해수도 팔꿈치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정현희(왼쪽)가 19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SK코리안리그 SK 슈가글라이더즈에서 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광주도시공사는 전반전 14골을 기록하며 12골에 그친 SK에 앞섰다.

하지만 후반 SK가 18골을 몰아넣은 반면, 10골에 그치는 득점력 저하로 경기를 내줬다.

오세일 감독은 "주전들의 부상으로 대체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데 원래 포지션이 아닌데다 주전과 대체수가 기량차가 크다 보니 전력 공백이 생기고 있다"면서 "현재 전력으로 최선을 다해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역전승' 광주 AI페퍼스 유종의 미

최종전서 기업은행에 3-2

V리그 시즌 5승 31패 마감

광주 AI페퍼스가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했다. 페퍼스는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도드람 V리그 IBK기업은행에 세트 스코어 3-2(21-25, 25-10, 12-25, 25-20, 15-13)로 역전승했다.

이날 승리로 페퍼스축구는 창단 후 두 번째 시

즌을 5승 31패(승점 14)로 마쳤다.

페퍼스는 창단 첫해(3승 28패-승점 11)보다 2승을 더 보냈다. 하지만 개막 17연패 기록도 남겼다.

이날 박경현은 양 팀 최다인 26득점을 올렸고 이한비(14점), 최가은(8점)이 활약했다.

5세트에서 페퍼스가 짜릿한 승리를 냈었다.

2-2에서 IBK기업은행의 서브 범실 이후 문승기와 박경현이 연속 오픈 득점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가은이 기업은행 표승주의 스파이크를 차단한 뒤 계속된 공격에서 블록 아웃을 끌어내며 점수 차를 7-2까지 벌렸다.

IBK기업은행의 추격에 쫓겨 8-8 동점을 허용했으나 뒷심을 발휘해 시즌 5번째 승리를 수확했다.

13-12에서 상대 표승주의 킥오픈이 코트를 벗어나며 매치 포인트를 쌓았고, 박경현이 오픈 공격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에서 20일 개막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서는 광주 여자 양궁 5인방. 최민선(왼쪽부터), 기보배·최미선·안산·오예진. <광주양궁협회 제공>

## 광주 여자 양궁 5인방 "항저우 가자"

20~25일 광주서 국가대표 3차 선발전...안산·기보배 등 출전

순천시청 이은경·남구청 이승윤도

광주 여자 양궁 5인방이 항저우아시안게임 티켓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친다.

2023 국가대표(리커브) 3차선발전이 20일부터 25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는 광주 양궁을 대표하는 기보배·최민선(이하 광주시청), 최미선(광주은행), 안산·오예진(광주여대)이 대회에 출전한다.

선발전은 1회전(70m·36발X4회, 동시발사 6발)을 치른 후 남녀 각 16명씩을 가린다. 이어 2~5회전 결과에 따라 남녀 각 8명의 태극마크를 선발한다.

최종 순위평가전을 거쳐 남녀 1~4위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자격을 획득한다.

안산과 최미선은 지난해 국가대표 최종 평가전을 통과하고 순위 평가전에서 3, 4위를 차지하며 항저우아시안게임 티켓을 따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회가 연기되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된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각각 2, 3위로 통과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기보배는 양궁 그랜드슬램에 도전한다.

2012 런던올림픽, 세계선수권 양궁월드컵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기보배는 아시안 게임과는 유독

인연이 없었다.

기보배가 꿈은 이룬다면 2000년대 최고의 여자 양궁 선수로 군림하며 한국 양궁 사상 유일하게 그랜드슬램을 이룬 박성현에 이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지난해 부상으로 선발전을 뛰지 못한 최민선은 태극마크 탈환에 나선다.

울산스포츠과학고 재학 중 태극마크를 탈며 주목을 받았던 오예진은 광주여대에서 갖고 뒀던 실력을 증명하겠다는 각오다.

2012 런던 기보배, 2016 리우 최미선, 2021 도쿄 안산 등 올림픽 양궁 3회 연속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양궁 명문 광주여대는 이번 선발전에 5명의 선후배가 함께 나서는 진기록을 세웠다.

기보배(2006학번), 최미선(2015학번)·곽진영(전북도청·2015학번), 안산(2020학번), 오예진(2022학번)이 선후배 우정을 뛰어넘는 진검승부를 펼친다.

이밖에도 이은경(순천시청)도 경쟁에 가세한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거머쥔 이은경은 아시안게임 2연패 도전을 이어간다.

남자부에서는 이승윤(남구청)이 태극마크 수성과 함께 명예회복을 바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즈메의 문단속
- 2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 3관 소울메이트, 플레인
- 4관 스즈메의 문단속
- 5관 사잠! 신들의 분노, 이니세린의 밴시,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 6관 스즈메의 문단속
- 9관 소울메이트
- 7관 씨네커플 대외비, 서치 2
- 8관 씨네커플 더 퍼스트 슬램덩크, 명몽이, 카운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3-01(수) ~ 2023-03-31(금)  
장소 : 광주공인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발레단 기획공연 발레상설공연 II  
<단원안무전 Ballet Curation>  
일시 : 2023-03-31(금) 19:30  
2023-04-01(토) 15:0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